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7호 봉선홍경사사적갈비



봉선홍경사갈비

유재영

왕비의 이빨조차 썩지 않는 불멸의 땅
옛 백제의 천안시 서북구 행갱이벌
고려국 마지막 유민 流民 滅亡선 듯 돌비 하나
구름 두른 머릿돌엔 비룡飛龍이 꿈틀대고
반침돌 당초무늬 덩굴손 뽕은 자리
오른쪽 머리 돌리고 눈 부릅뜬 이무기여
해동공자 최충 글을 백현례 해서체로
천년 세월 두고두고 숨을 쉬듯 정갈한 뜻
산 너머 저 뼈썩이는 아는지 모르는지.....
한때는 임금님도 머물다간 큰 절집
정권은 부패했고 나라는 토란이다
어찌다 백성들 원성 여기까지 사무쳤나
대응전도 아이마라도 다 벗어던졌다
없는 자 털벗은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
홀로서 들뜬에 우뚝 그들 보러 나왔구나
살육과 화염에도 타지 않는 민중의 혼
위례에서 금나루 흠비 오는 길을 따라
오늘도 망이·망소이 그 함성을 들었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행갱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흥리
*망이·망소이의 난: 고려 무인 집권 때 굶주린 백성들을 모아 망이·망소이가 일으켰던 민란의 하나. 그들에 의해 봉선홍경사갈비가 있던 홍경사가 불탔다.

유재영 시인은... 1948년 충남 천안 출생. 1973년 시와 시조가 추천되어 등단. 시집 <한 방울의 피> (지상의 중심이 되어) <고욤꽃 떨어지는 소리> 및 시조집 <햇빛시간> 등

“화합으로 일하는 분위기 만들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설날 신년하례서 당부

조계종 중앙총무기관과 부설기관 신년 하례가 1월 26일 오전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신년하례에서 중앙총무기관과 부설기관 총무원 등에게 “화합을 화두로 응맹정진 하라”는 종정 법전 스님의 신년교시를 강조했다. 이어 총무원장스님은 “화합은 부서간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부실장에서부터 국장 차장 팀장 행정관 주임까지 충분히 교감하고 배려·논의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소통과 화합으로써 각자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며 정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신년하례는 한글 삼귀의와 한글(반야심경) 봉독, 부처님 통알(通諱), 원장 스님 하례, 부실장 스님 하례, 참석대중 맞절, 새해덕담,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신년하례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교육원장 현웅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교섭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총무부장 영담 스님, 정책특보단장 원담 스님,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 등 중앙총무기관 및 부설기관 총무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진각종이 1월 23일부터 3월 11일까지 새해49일 불공을 봉행하는 등 각 종단마다 신년하례를 진행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중앙총무기관과 부설기관 사무대중은 1월26일 신년하례를 통해 화합으로 하나된 한해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비구니 스님, 공사 현장에서 폭행

트위터 통해 소개돼 일파만파 확산 누리꾼들 “있을 수 없는 일” 분노

경남의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태고종 비구니 스님이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방이 일고 있다. 통합진보당 권영길 의원은 1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전의 밀양 초고압 송전탑 공사장에는 용역들의 온갖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방관하고 있었네요. 송전탑을 반대하는 비구니스님을 집단 성폭행하고 70~80할머니들을 개 부르듯이 ‘위리위리’ 하며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권 의원이 언급한 태고종 비구니 스님은 2011년 11월 10일 경남 밀양시 산외면 108번지에서 진행 중인 초고압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감리와 공사업체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현장에는 주민 9명이 공사 저지를 위해 공사 관계자들과 대치중이었다.

한전이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69개의 철탑이 밀양에 세워지자 철탑 인근의 주민과 종교인들이 생존권과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며 반대해왔다. 태고종 비구니 스님의 법당도 송전탑에서 불과 400m 거리에 인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경찰서는 권영길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알린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밀양경찰서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권 의원님이 트위터에 올린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고소인(비구니스님)은 성추행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고소 내용이었지 통상적인 성폭행 사건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공사 진행을 위한 인부들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마찰을 빚으면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복면을 쓰고 있던 스님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 복면을 벗기는 과정에서 폭력자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박기범 기자

지원 스님, 추운 이웃에 외투 보시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육지장사 주지)이 추운 겨울을 어렵게 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외투를 보시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1월 17일 안성 칠장사(주지 지강)에 겨울 외투와 목도리 등 23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겨울 점퍼 450벌, 바람막이 재킷 120벌, 신발 150켤레 등 월동용품들로, 육지장사 신도 정혜

화 보살과 재원 스님이 후원해 마련됐다.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은 포교원장스님으로부터 전달 받은 물품들을 안성 하나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전달했다. 일부는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선물한다. 조종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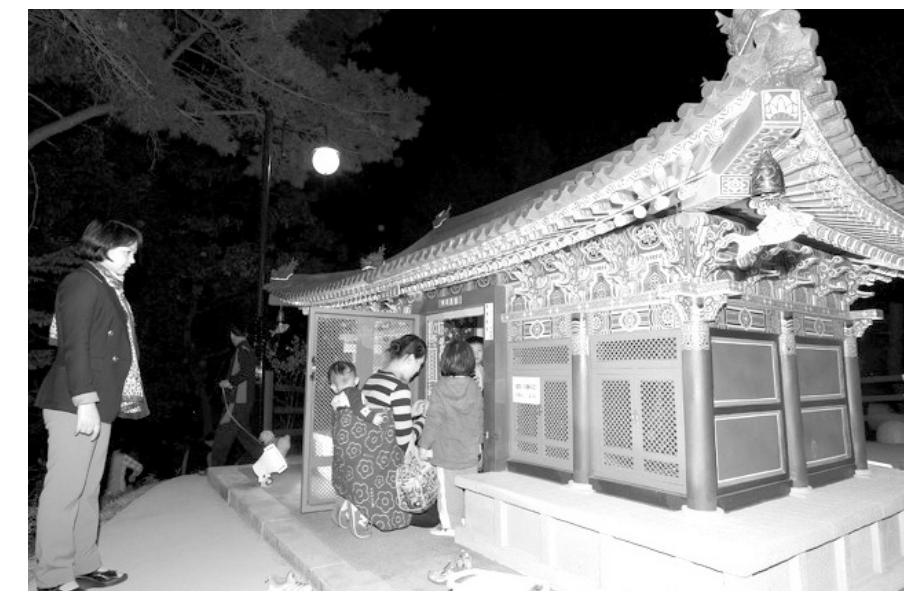


진주 성전암 복원불사 다시 시작

진주시, 허가문제 원점 재검토키로

화재로 소실된 전통사찰 성전암의 복원을 불허했던 진주시가 허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진주 성전암 주지 성공 스님은 1월 16일 진주시청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가 허가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도청산지관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성을 풀고 성전암 복원 불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성공 스님은 진주시의 복원불사 불허에

항의하며 64일간 시정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이날 스님은 “사람에서 수행하며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수행자가 거리에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달라”며 그동안 농성으로 불편을 겪었을 시민들에게 참회했다. 한편, 성전암은 2010년 5월 방화로 주요 건축물이 소실돼 복원불사를 추진해왔으나, 진주시의 불허로 2011년 11월 13일부터 지역불교계와 함께 부당함을 호소해 왔다. 조종섭 기자 cetana@hyunbul.com



세계에서 가장 작은 사찰 울산 남구가 선암호수공원에 조성한 초미니 절과 교회, 성당 등 3개 종교시설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 화제다. 울산 남구청(청장 김두겸)은 1월 15일 “최근 초미니 종교시설 3곳에 대한 디자인과 기능에 관한 특허 출원을 위해 세부도면과 사진 등 관련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높이 1.8m, 너비 1.2m, 길이 3m 규모로 2011년 9월 지어진 안민사는 한 사람이 예불을 올릴 수 있는 크기다. 내부에는 공양미 쌓둑이 있는데 대박 쌓둑으로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다. 김두겸 남구청장은 “특허 출원과 함께 기네스북 등재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색적이고 희소 가치가 높은 지역 관광자원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예술대학 학인모집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제10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범패·소리과정 : 기본 예불, 도량식, 종성, 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1년과정 - 매주 화요일)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십구재·천도재·장엄 및 제사 준비 등 전과정
■ 작법·무용과정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계작법, 도량계작법 (1년과정 - 매주 화요일) 바라춤 - 요잡바라, 관옥계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강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작법부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 초 스님

- 개강일시 : 2012년 3월 6일(화요일) 오후 3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 요일 : 화요일 - 작법(무용)과정 : 오후 1시 ~ 오후 3시 / 범패 소리과정 : 오후 3시 ~ 5시
● 접수기간 : 2012년 2월 ~ 2012년 3월 5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사단법인 대한불교삼계종 부설 한국불교예술대학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1-10호 인쇄빌딩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동소정사거리 부평6동 우체국 옆)
전화 : 032)529-6708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본 대학 http://www.bumpae.org / 삼계종 http://www.samgyeojong.org